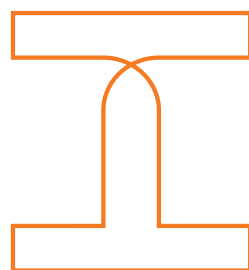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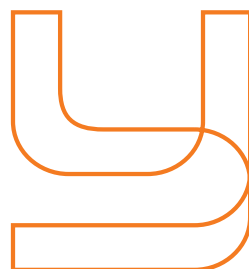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책임연구원 이창호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책임연구원 :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파동과 이에 따른 촛불 집회, 2014년 발생한 세월호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매우 두드러졌음.
- 특히 최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대통령탄핵안이 국회에 의해 가결되고 그 결과 대통령이 탄핵되는 등 국정위기가 지속되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고 있음. 서울 광화문에서는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연이어 계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집회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음.
- 이에 따라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청소년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이 정치참여에 대해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이고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음. 또한 차기정권에서 어떤 청소년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필요가 있음.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청소년참여에 대한 기존연구를 통해 청소년참여의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함.
- 전문가자문회의 : 청소년정치참여에 대한 설문지 문항개발과 정책적 제언 도출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음.

- 설문조사분석 : 전국 고등학교 17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430명을 표집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

3. 주요 연구결과

- 현행 투표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소년들 3명 중 2명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응답자의 65.9%가 찬성, 반대는 18.4%로 나왔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5.7%에 달했음. 이러한 결과는 2016년 10월 국정농단사건이 밝혀진 이후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바뀌었음을 시사함.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선거연령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데 찬성한 비율이 24.7%에 그쳤음.
- 2016년 10월 국정농단사건이 알려진 후 조사시점까지 진행된 촛불집회에 청소년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질문한 결과 75.7%의 응답자들이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음. 즉 한번이라도 참여한 청소년은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음. 촛불집회참여평균은 0.44회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1.06이었음.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는 1회 참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로 청소년들은 신뢰성과 정직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정책추진력, 지도력, 도덕성이 그 뒤를 이었음. 전반적으로 설문에 사용한 8가지 자질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국정농단사건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청소년들은 정직하고 신뢰할만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음.
- 19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청소년들은 청년실업문제를 꼽았음. 이어 부정부패문제, 범죄문제, 빈부격차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음. 즉 청소년들은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해결과 부정부패척결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임.

- 19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청소년문제로는 대학등록금부담이 꼽혔음. 청소년대상성 폭력문제, 청소년자살문제도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음. 반면, 선거연령하향문제와 게임중독문제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음. 많은 청소년들이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했지만 선거연령하향이 새로운 정부에서 해결돼야 시급한 문제로는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임. 게임중독 또한 청소년들은 다른 문제들에 비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지 않았음.

4. 청소년정치참여활성화 방안

- 우리사회의 경우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매우 심한 편임. 즉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념갈등과 대립이 격화돼 왔음. 정치교육 또한 좌, 우파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독일처럼 좌, 우파를 넘어서서 정치교육에 대한 일정한 원칙(특정한 사상이나 견해주입금지, 학생들 스스로의 판단력 기르기 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 독일은 일찍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면서 국가 뿐 아니라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장려하고 있음. 우리사회의 경우에도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어느 정도 공감이 이뤄졌음.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 학교에서 시민교육이 뿌리를 내리기에는 갈 길이 멀어보임. 따라서, 청소년정치교육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교육실태에 따르면, 정치교육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법과 정치’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의 비율은 채 10%도 안되고 이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임. 이는 ‘법과 정치’ 과목이 사회탐구의 선택과목으로 돼 있기 때문임. 더구나 기존의 정치과목과 법과목이 합쳐졌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량도 많아 수험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학생들이 정치관련 교과목을 많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관련 과목들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선거제도, 법 등 기본적인 정치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목 차

제 I 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제 II 장 청소년정치참여 실태 및 요인	7
1. 정치참여 실태	9
2. 정치참여 요인	11
3. 정치참여 장애요인	15
4. 정치교육사례	18
제 III 장 고등학생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조사결과	19
1. 연구방법	21
2. 연구결과	24
제 IV 장 청소년정치참여활성화방안	49
1.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51
2. 정치교육의 원칙 확립	53
3. 정치관련 교과목의 필수화	53
4. 수업시간을 통한 정치적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 활성화	54
5. 모의선거를 통한 정치참여의 확대	54
6. 거리집회 등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 및 정치효능감 제고	55
7. 선거연령하향 제도화를 위한 노력	55
참고문헌	57
부 록	63

표 목 차

〈표 II-1〉 정치적 이슈에 관해 친구들과 토론하는 학생의 비율	16
〈표 III-1〉 주요 조사문항 및 출처	22
〈표 III-2〉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의견	24
〈표 III-3〉 교육감 선거연령에 대한 의견	25
〈표 III-4〉 집단별 촛불집회참여 차이	27
〈표 III-5〉 촛불집회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	28
〈표 III-6〉 집회참여여부에 따른 정치적 관심, 효능감, 대화의 차이	29
〈표 III-7〉 선거에 대한 관심정도	29
〈표 III-8〉 투표의향	30
〈표 III-9〉 투표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31
〈표 III-10〉 대통령의 자질	32
〈표 III-11〉 해결돼야 할 우리사회의 시급한 문제	33
〈표 III-12〉 시급한 청소년문제	34
〈표 III-13〉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35
〈표 III-14〉 정치뉴스 이용 매체	35
〈표 III-15〉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	36
〈표 III-16〉 정치적 대화 정도	36
〈표 III-17〉 정치적 관심	37
〈표 III-18〉 정치효능감	37
〈표 III-19〉 집단별 정치효능감 차이	38
〈표 III-20〉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39
〈표 III-21〉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경험	40
〈표 III-22〉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경험 빈도	41

〈표 III-23〉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42
〈표 III-24〉 정치교육에 대한 욕구 경험 빈도	43
〈표 III-25〉 선거연령 하향 찬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44
〈표 III-26〉 자신의 정치적 성향	45
〈표 III-27〉 주요 변인들의 직, 간접효과 및 총효과	47

그 림 목 차

[그림 II-1] 2000년 이후 청소년정치참여 현황	10
[그림 II-2] 공공기관에 대한 청소년의 신뢰정도	17
[그림 III-1] 촛불집회 참여횟수	26
[그림 III-2] 청소년문제 순위	34
[그림 III-3] 소셜미디어뉴스 이용이 정치적 대화 및 투표의향에 미치는 영향 ...	46
[그림 IV-1] 민주시민교육의 구성요소	52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8년 일어난 미국산 쇠고기수입파동, 2014년 발생한 세월호사건 등 우리사회에서 굵직굵직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매우 활발하였다. 디지털, 정보화세대인 10대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친숙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매체였다(이창호, 정의철, 2008).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제도적 참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이나 기존의 사회규범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은 시위나 집회참여와 같은 비전통적인 참여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민영, 노성중, 2011).

특히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한동안 국정위기가 지속되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고 있다. 2016년 10월 이후 서울 광화문에서는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연이어 계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집회참여는 더욱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시민단체, 청소년관련단체에서는 현행 선거권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상경(2014)은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청소년의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여 그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윤나(2010)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 학부모, 청소년 모두 청소년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연령으로 만 18세 정도(교사 17.89세, 학부모 18.05세, 청소년 17.67세)를 제시하였다. 즉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 역시 만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표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만만찮다. 본원이 2016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의 24.7%가 선거참여연령을 만 19세보다 낮춰야

하는 것에 동의했고 절반이 약간 넘는 53.3%가 현재대로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2016).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16.0%에 달했다. 청소년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청소년들은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것(37.8%)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라는 것이 28.8%로 그 뒤를 이었다. 참여활동에 대한 정보부족도 16.5%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 조사의 경우 최근의 국정농단사건 이전에 이뤄져 2016년 10월말부터 진행된 촛불집회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2017년 1월 청소년 256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85.5%가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찬성이유로는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고 '헌법이 보장받는 권리'라는 응답이 29.7%로 그 뒤를 이었다(일요서울, '17. 2. 21). 비록 적은 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지만 최근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17년 1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4%가 현행선거연령을 조정해야 한데 찬성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7). 반대는 41.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8%였다. 선거연령조정에 찬성한 사람들의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5.4%)와 40대(61.8%)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은 27.7%로 가장 낮았다. 선거연령조정에 찬성을 보인 응답자들 중에는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선거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거연령을 낮출 경우 대학입시를 앞둔 고3 교실이 선거판으로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교사의 학생지도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서울경제, 2017. 1. 12).

이처럼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들이 강해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의 국정위기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정치참여에 대해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계적이고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투표연령 하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와 투표권이 주어질 경우 선거에 얼마나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촛불집회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와 이러한 참여가 청소년의 투표의향이나 정치효능감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대통령이 어떤 자질과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와 어떤 청소년 문제가 새로운 정부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1. 청소년정치참여현황 파악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현황을 사건별로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청소년정치참여욕구 및 실태조사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파악을 위해 청소년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정도, 정치효능감, 정치정보획득경로 등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어떤 능력을 갖춘 대통령을 선호하는지와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서 어떤 이슈들이 차기정부에서 해결돼야 좋을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작년 10월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등 정치참여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3. 청소년의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제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청소년참여에 대한 기존연구를 통해 청소년참여의 실태를 살펴보고 청소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문회의

청소년정치참여에 대한 설문지 문항개발과 정책적 제언 도출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지문항개발에 고등학교 교사 1명, 교수 1명, 공무원 1명 등 총 3명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또한 정책적 제언도출을 위해 교수 1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1명, 고등학교 교사 2명 등 총 4명으로부터 자문을 얻었다.

3. 설문조사

고등학생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정도, 미디어이용정도, 차기정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청소년문제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제 II 장

청소년정치참여 실태 및 요인

1. 정치참여 실태
2. 정치참여 요인
3. 정치참여 장애요인
4. 정치교육사례

제 II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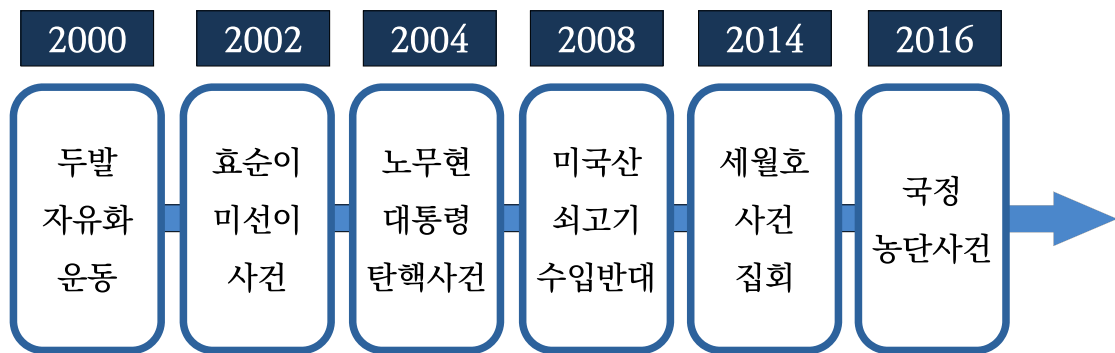
청소년정치참여 실태 및 요인

1. 정치참여 실태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참여활동, 시민단체활동 등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관용의식이나 공동체의식과 같은 민주적 시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허인숙, 이정현,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경우 투표권이 없다보니 투표를 통한 정치참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사회문제와 관련한 집회참여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 최근 1년간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해본 적이 있다(가끔있다고 자주있다고 합친 것임)는 응답자의 비율은 7.3%에 그쳤다(김영지 외, 2016). 교급별로 보면 중학생 8.3%, 고등학생 6.4%였다. 최근 1년간 사회문제참여를 위해 모임이나 인터넷카페에 얼마나 가입하였는지를 알아본 결과 가입경험이 있는 비율(가끔있다고 자주있다고 합친 비율)은 전체응답자의 15.4%에 불과했다(김영지 외, 2016).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16.9%, 고등학생 14.1%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집회에 참여하거나 모임에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자율학습이나 두발규제 등 청소년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저항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소통이 자유로워지면서 큰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두드러졌다. 비록 거리집회참여는 제한적이었지만 인터넷을 매개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패턴이 일반화되었다.

아래 [그림 II-1]에서도 나타나듯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2000년에 발생한 두발자유화운동 이후 활성화되었다. 이후 2002년 월드컵 당시 두 여중생이 미군장갑차에 의해 깔려죽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미군사협정에 대한 청소년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운동 때는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돼 국내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그림 II-1] 2000년 이후 청소년정치참여 현황

더구나 같은 또래의 고등학생 수백명이 목숨을 잃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집회 때는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청소년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무능한 국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최근 최순실 사건으로 2016년 10월 이후 매주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광화문광장을 메우고 있다. 이전의 집회참여와 달리 사상초유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으로 청소년의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모습도 많았고 청소년단체가 직접 집회를 주도하는 모습도 눈에 많이 띄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번 기회에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내고 있고 교육감선거에도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청소년의 정치참여 현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시킨 매체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2000년 두발자유화운동은 청소년웹진으로부터 촉발되었으나 2008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집회의 경우 인터넷카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배규한, 이창호, 2008).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부터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이 신뢰할만한 정보를 얻는 주요 플랫폼이 되었다. 따라서, 가족이나 학교 등 전통적인 정치사회화의 기제가 소셜미디어를 토대로 한 대중매체로 이미 옮겨갔다고 볼 수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가들에 비해 정치시민교육이 학교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여전히 가부장제적 가족구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정치문제로 논의하고 대화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탈제도화된 온라인세계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한 정보를 얻고 정치에 관한 논의를 펼치는 공론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여러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청소년의 정치의식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매스미디어이다(최호택, 류상일, 2008).

다음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이다. 최근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지만 청소년의 거리집회참여가 활성화된 2008년 이후부터 꾸준히 이러한 목소리는 있었다. 2016년 10월 이후 매주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가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집회여서인지 청소년의 참여도 많아지고 그들의 참정권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2. 정치참여 요인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디어이용정도, 인터넷이용동기, 정치적 관심도, 정치효능감 등 매우 다양하다. 이 중에서도 권력의 간섭이나 통제에서 자유로운 수평적 의사소통구조인 인터넷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연구들이 중,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10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1) 인터넷미디어환경

앞서 살폈듯이,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들의 정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6)이 10대 청소년의 미디어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1주일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뉴스는 인터넷(PC와 모바일), TV, SNS, 메시징서비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촉발된 정보화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장우영, 2006) 청소년들 역시 인터넷을 통해 정치, 사회적인 정보를 많이 얻을수록 참여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상현, 이창호, 2012; 하승태, 이정교, 2012). 또 다른 연구사례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정치토론을 활발히 하거나 댓글작성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집회 및 시위참여나 서명운동 등 정치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영, 주익현, 2007). 앞서 언급한 2008년 5월 발생한 촛불집회 때도 인터넷의 영향력이 컸다. 이창호와 정의철(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은 미국산쇠고기수입이라는 사회문제에 관해 청소년의 관심과 관여도를 높이고,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동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청소년들은 미국산 쇠고기나 광우병에 관한 정보를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었으며 인터넷카페 게시판을 통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전 산업사회에서

일반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선거나 정당 등에 국한됐던 반면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가 일상화되고 있다. 즉 게시판과 블로그 등을 통해 표출되는 네티즌들의 의견은 사회의 여론을 형성, 강화시키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송경재(2005)는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참여를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참여와 구분해 ‘네트워크형 정치참여’라 규정하고 있다. 즉 패러디물의 범람, 항의메일, 리플달기, 글 나르기, 사이버촛불시위 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이버 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정치참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매체에 비해 인터넷의 신뢰도 높아지고 있다. 가령, 인터넷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명규, 류정호, 2007). 즉 인터넷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인터넷에서 접하는 정보가 신뢰할만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정치기사와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정치관련 댓글을 달거나 정치토론을 많이 하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활성화된 1인 미디어(블로그, UCC, 인터넷방송 등)도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정기(2011)의 연구결과 1인 미디어 이용정도는 오프라인 대안적 정치참여(집회, 서명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이를 통한 정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나는 꼼수다’와 같은 정치팟캐스트도 이용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치지식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영, 2014). 특히 정치팟캐스트는 정치관심이 높은 집단보다는 정치관심이 낮은 집단에게서 그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 사회적인 정보를 많이 얻는 청소년은 기부, 봉사, 서명운동,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셜미디어가 모든 청소년의 정치, 사회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이창호, 모상현, 2012). 미국의 연구에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현안정치문제에 관한 뉴스를 많이 얻을수록 온라인정치참여와 오프라인정치참여(투표참여, 정치적 모임이나 집회 참여 등)가 많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Gil de Zuniga, Jung, & Valenzuela, 2012). 이뿐 아니라 이 연구에서는 SNS 뉴스 이용은 사회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사회자본은 시민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싱가포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인터넷뉴스이용은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정치, 사회적 참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SNS 뉴스이용 또한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o et al., 2014). 하지만 전통적 뉴스이용(신문, TV, 라디오)은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른 이용동기도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가령, 민영과 노성종의 연구에 따르면, 서명이나 사이트방문 등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치적 이용동기가 강할수록 청소년들의 제도적 참여(투표참여, 정치인후원 등)와 대안적 참여(집회 및 시위참여, 서명 등)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영, 노성중, 2011). 즉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오락적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정치적 동기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서 정치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김은미, 양소은(2013)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을 정보나 오락보다는 교류 목적으로 이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제도적, 대안적 참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 사회이슈와 관련된 인터넷활동은 제도적 참여보다는 대안적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활동은 집회참여 등 대안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김성태 등(2011)은 이러한 소셜네트워크시대의 정치참여를 웹 3.0 단계의 정치참여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소셜네트워크 시대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용자들이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이슈나 감성적인 이슈 등이 주목받게 된다는 것이다. 웹 1.0 단계에서 정치참여가 인터넷홈페이지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웹 2.0 단계에서는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같은 1인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했다. 하지만, 웹 3.0 단계에서는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개인간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김성태, 김여진, 최홍규, 김형지, 2011).

이처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청소년들이 공공적 이슈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를 나누는 대안적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청소년들이 정치관련 정보를 얻는 주요 플랫폼이 되고 있다.

2) 관심, 효능감, 대화 등 정치사회적 요인

정치, 사회적 문제에 관한 관심이나 정치효능감, 대화정도 또한 정치적 참여와 관련성이 매우 높은 변인들이다.

이재신·이영수(2009)의 연구결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주의 등 관여정도가 높을수록 정치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총선직후 이뤄진 서울지역 20세 이상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도 정치관여도와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송종길·박상호, 2006). 또 다른 연구에서도 정치적 관심이 높을수록 투표참여나 정당활동, 집회 및 시위참여 등 정치참여도 활발했다(민영·주익현, 2007). 정치적 관심은 청소년의 기부, 서명운동, 특정제품불매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이창호, 모상현, 2012). 즉 정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기부나

서명운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적 관심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았다(이창호, 2012). 이처럼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관여정도는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김영인(2003)의 연구에서는 정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얻을수록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과 신뢰, 참여의식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체제에 미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정치효능감 역시 정치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효능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정치참여의사(합법적, 비합법적 항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봉민, 2013). 특히 정치효능감이 높은 경우 높은 정치신뢰감을 가졌을 때 낮은 정치신뢰감을 가진 경우보다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정치참여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종원, 2006). 정치효능감은 대학생들의 투표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창호, 2012). 또한 정치효능감은 청소년의 봉사활동, 기부, 서명운동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청소년의 집회참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창호, 모상현, 2012). 이정기(2011)의 연구에서도 정치효능감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대안적 정치참여에는 어떤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외재적 정치효능감은 온라인공간에서 이뤄지는 대안적 정치참여와 부적인 관련이 있었다. 즉 정부가 개인의 정치적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낮을수록 온라인 공간에서 보다 활발히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이철한과 한정보(2007)의 연구에서는 TV 뉴스와 후보자간 TV 토론을 많이 접한 사람일수록 정치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고등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늦은 시간에 이뤄지는 TV 쇼와 지역 TV 뉴스를 많이 시청할수록 정치적 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시민참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offman & Thomson, 2009). 즉 정치적 효능감은 텔레비전시청과 시민참여를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면대면 대화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부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친구나 형제와 정치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정치참여(인터넷댓글달기 등)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운, 하승태, 2015). 즉 또래들과 자주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모상현과 이창호(2012)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친구들과 정치, 사회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정치참여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연구에서도 친구와의 대화나 부모와의 대화는 청소년의 정치, 사회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하승태, 이정교, 2012). 16대 대선이 끝난 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16대 대선에 관해 친구와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인, 2003).

친구와 더불어 부모와의 대화도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 조사에 의하면, 부모와 정치적 이슈에 관한 대화나 토론을 자주하거나 가족과 함께 뉴스를 시청하는 청소년일수록 제도적(선거, 캠페인 등), 대안적 참여(서명, 집회 등)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은미, 양소은, 2013). 노르웨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족의 문화적 자원 즉 집에 소장돼 있는 책의 양과 부모와 자녀 간의 정치적 토론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Odegard & Berglund, 2008). 즉 부모와 정치적 토론을 자주하는 청소년일수록 서명이나 집회 및 시위참여 등 이념지향적 활동(cause-oriented activities)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용운과 하승태(2015)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대화는 정치참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선행연구결과들은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정치효능감이 높으며 주변사람들과 자주 정치적인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청소년일수록 정치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3. 정치참여 장애요인

위에서 살펴본대로,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근래들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더불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도 많다. 이 중 대표적인 장애요인은 잘 알려져 있듯이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즉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정치적 구조나 제도를 암기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정치,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학교수업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표 II-1>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최근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 같은 반 친구들과 수업시간에 토론하는 경우는 중학생의 경우 60.7%였고 고등학생의 경우 72.1%였다(장근영, 박수익, 2011). 즉 10명 중 3~4명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수업시간에 정치적 논쟁거리나 이슈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남녀별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중학생의 경우 토론에 참가한 적이 있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경우도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좀 더 많이 정치적 이슈에 관한 친구들과 토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정치적 이슈에 관해 친구들과 토론하는 학생의 비율

		초		중		고		전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성별	남	65.3	34.3	60.7	39.3	72.1	27.7	67.0	32.9
	여	64.0	35.4	68.6	31.4	77.8	22.2	70.8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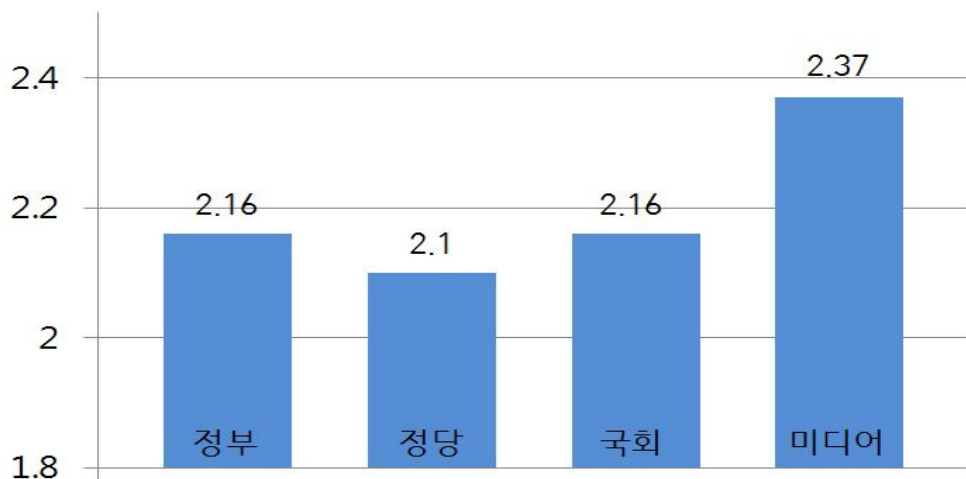
출처 : 장근영, 박수익 (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 I
: 2011 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143쪽.

실제로 청소년의 61.3%가 학교에서 투표 및 선거 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다양한 청소년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68%가 성적중시풍토개선을 꼽았다(일요서울, '17. 2. 21). 이 같은 사실은 암기위주의 현 교육환경 하에서는 청소년의 자유로운 정치토론이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처럼 고등학생들의 경우 학교 수업시간에 정치, 사회적 문제나 이슈를 진지하게 친구들과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워야 할 정치과목은 개설돼 있지만 이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10%도 채 안된다는 것도 문제이다(김명정, 2016). 학교에서 정치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사회탐구영역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2009 개정교육과정이 수능에 적용된 2014학년도 수능부터는 '정치' 과목과 '법과 사회' 과목이 합쳐져 '법과 정치' 라는 과목이 탄생하였다(김명정, 2016). 하지만, '법과 정치' 를 선택한 학생들의 수는 2014년 38,203명, 2015년 31,056명, 2016년 28,964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김명정, 2016). 즉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등 다른 사회탐구과목에 비해 '법과 정치' 를 선택한 수험생들의 비율이 현격히 적다. 정부형태나 정치제도, 선거제도 등에 관해 배울수 있는 과목이 개설돼 있지만 오히려 학생들은 이를 선택해서 배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이 과목을 기피하는 이유로 과도한 학습량과 학습내용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고 한다(김명정, 2016). 즉 기존의 두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되면서 배워야할 내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기가 정치적 의식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인 소양을 함양하는 중요한 시기니만큼 '법과 정치' 과목을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도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다보니 정치권 또한 청소년문제나 이슈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18대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정책을 비교,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정책의제가 매우 빈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2). 아예,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청소년들(92.2%)이 정치권이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일요서울, '17. 2. 21). 따라서, 정치권에서 청소년이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나 주장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서인지 공공기관에 대한 청소년의 신뢰 역시 강하지 않다. 아래 [그림 II-2]에서도 나타나듯이, 공공기관에 대한 청소년의 신뢰는 평균(2.5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에 대한 신뢰는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정부, 정당, 국회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청소년의 신뢰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많이 개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2] 공공기관에 대한 청소년의 신뢰정도

주. 4점 척도(전혀 신뢰하지 않음=1 ~ 매우 신뢰함=4)로 구성

출처: 장근영 외 (2016). 청소년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II.

4. 정치교육사례

앞서 살폈듯이, 우리사회의 경우 정치교육이 제도화 돼 있지 않다보니 청소년들이 정치과정이나 정치체계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사회중심으로 정치교육이나 시민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많은 한계들을 지니고 있다(김미경, 2009). 김미경(2009)은 시민단체들의 정치교육의 한계로 자원부족,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 부족, 뉴미디어와 사이버교육프로그램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선거연수원에서는 초, 중, 고 학생회장 및 학생회임원들을 대상으로 미래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제외하면 많이 없는 실정이다¹⁾.

‘민주주의 선거교실’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맞춰 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자질과 정치참여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실시해 온 것으로 2015년 133회, 2016년에는 233회 실시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사회와 달리 독일의 경우 독일정치교육협회가 2004년 정치교육국가표준안을 발간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신보라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이 표준안에 따르면, 정치교육능력모형은 정치적 판단능력, 정치적 행위능력, 방법적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즉 청소년들이 특정 정치적 사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행위능력 못지 않게 정치적 판단능력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치참여를 위한 선거교육자료를 잘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만들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다원주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연방정치교육원, 각 주정부 산하의 정치교육원, 정당의 정치교육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홍은영, 2015). 즉 정치재단, 교회, 노조, 시민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김미경, 2009).

이처럼 우리사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치,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드물다.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다보니 학교에서도 정치, 시민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1) 선거연수원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담당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자문내용('17. 2. 20)에 기초한 것임.

제 III 장

고등학생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조사결과

1. 연구방법
2. 연구결과

제 III 장

고등학생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조사결과

1. 연구방법

1) 표집방법

고등학생 청소년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조사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의 한 조사업체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고등학교 중 17개 학교를 표집하게 되었다. 표집은 층화집락추출방식으로 이뤄졌다. 즉 두 개의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특성화고)과 네 개의 권역(수도권, 강원/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으로 층화한 뒤 학생규모를 고려하여 추출학교수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에서 7개 학교, 경상권에서 4개학교, 충청/강원권에서 3개학교, 전라/제주권에서 3개 학교 등 총 17개의 학교가 선정되었다(한국리서치, 2017). 특목고와 자율고는 학생수가 비교적 적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해당학교로 공문을 보내 조사협조를 구하고 본 조사가 학교평가와는 전혀 무관하며 학생들의 응답은 오로지 청소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란 점을 강조하였다. 면접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렇게 표집된 학교에서 학년당 1개 학급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되면 한 학교당 3개 학급을 조사하게 된다. 그 결과 17개 학교 51개 학급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총 1,430명의 유효표본을 얻을 수 있었다. 조사기간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되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59\%$ p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성별은 남성 807명(56.4%), 여성 623명(43.6%)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457명(32.0%), 2학년 504명(35.2%), 3학년 469명(32.8%)이었다.

2) 조사문항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를 조사하는 데 있다. 주요 설문문항 및 출처는 다음과 같다. <표 III-1>에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문항들은 연구자가 직접 개발한 것들이다.

표 III-1 주요 조사문항 및 출처

조사영역	조사문항 수	출처
미디어이용정도	6문항 (TV, 라디오, 소셜미디어, 인터넷신문, 포털, 정치팟캐스트)	이창호, 성윤숙, 정낙원 (2012)
소셜미디어를 통한 경험	4문항 (게시글 읽기, 의견달기, 퍼나르기, 온라인청원)	배상률(2015)
정치에 대한 관심	5문항 (정치적인 이슈, 정부정책, 정당, 정치인, TV정치토론)	김은미, 양소은 (2013)
정치효능감	3문항 (국가정책에 대한 합리적 판단,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 관심과 참여의 국정운영 도움)	김명정 (2009), Jung et al. (2011)
대통령자질	8문항 (도덕성, 정직성, 신뢰성, 서민적인 성품, 국정운영경험, 지도력, 정책추진력, 전문성)	민영 (2008)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4문항 (정부, 정당, 국회, 언론)	장근영, 박수억 (2011)

구체적으로 미디어이용정도는 응답자들이 정치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신문, TV 뉴스, 라디오뉴스, 소셜미디어, 포털뉴스, 정치팟캐스트 등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경험은 배상률(2015)을 참조하여 정치적인 게시글 읽기, 의견달기, 퍼나르기, 온라인청원참여 등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정치적 문제나 이슈에 관한 대화정도는 친구, 부모, 교사, 친척, 온라인친구와 평소 이 문제에 관해 얼마나 대화하는 지로 측정하였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인 이슈, 정부정책, 정당, 정치인 TV 정치토론에 대한 관심정도를 의미하며 4점 척도로 구성돼 있다. 정치효능감은 김명정(2009)과 Jung et al.(2011)을 참조하여 모두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거참여는 우리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거에 대한 관심정도를 보여주는 변인으로 이를 통해 지방선거(광역시도), 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 국회의원선거, 교육감선거, 대통령선거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선거연령 인하 문제에 관한 청소년의 생각을 질문하였고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도 만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최근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참여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실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돼 집회참여횟수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이나 모의선거를 얼마나 경험하였는지 질문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도 물었다.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질은 민영(2008)을 참조하여 모두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도덕성, 정직성, 신뢰성, 서민적인 성품 등 4개의 문항은 개인적인 자질에 관한 것이고 국정운영경험, 지도력, 정책추진력, 전문성 등 4개문항들은 직무능력과 관련된 것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장근영, 박수익(2011)을 참조하여 정부, 정당, 국회, 언론에 대한 신뢰정도를 4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차기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관해서는 우리사회의 문제와 청소년문제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우리사회의 시급한 문제로는 최근 언론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빈부격차문제, 세대갈등문제, 청년실업문제, 이념대립 및 갈등, 사드배치문제 등이 이 영역에 포함돼 있다. 청소년과 관련한 문제 역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폭력문제, 게임중독문제, 안전문제, 선거연령하향 등을 제시하였다.

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학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7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빈도분석시 3점 척도 (하(1,2), 중(3,4,5), 상(6,7))로 리코딩하였다. 3점 척도로 리코딩한 결과 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109명(7.6%)으로 나타났고 중에 해당하는 학생이 1,244명(87.3%), 하에 속하는 학생이 72명(5.1%)로 드러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식 및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빈도분석과 학년과 성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치참여(투표의향 및 촛불집회참여여부)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들이 즐겨 이용하는 소셜미디어가 정치효능감 및 정치관심을 매개로 투표의향 및 정치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결과

1) 투표연령 하향 주장에 대한 견해

먼저, 현행 투표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소년들 3명 중 2명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65.9%가 찬성, 반대는 18.4%로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5.7%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 10월 국정농단사건이 밝혀진 이후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바뀌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선거연령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데 찬성한 비율이 24.7%에 그쳤다.

성별로 보면 선거연령하향조정에 찬성한 비율이 남학생(63.8%)보다 여학생(68.7%)에게서 약간 더 높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2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의견

		반대	찬성	잘 모르겠음	전체	유의성
전체		262 (18.4%)	940 (65.9%)	224 (15.7%)	1,426명 (100.0%)	
성별	남	159 19.8%	512 63.8%	132 16.4%	803 100.0%	Chi-square =3.96 (유의하지 않음)
	여	103 16.5%	428 68.7%	92 14.8%	623 100.0%	
학년별	1학년	93 20.4%	272 59.9%	90 19.7%	456 100.0%	Chi-square =17.63 p<0.01
	2학년	77 15.3%	363 72.2%	63 12.5%	503 100.0%	
	3학년	92 19.7%	304 65.1%	71 15.2%	467 100.0%	
소득 수준별	상	22 20.6%	65 60.7%	20 18.7%	107 100.0%	Chi-square =4.05 (유의하지 않음)
	중	232 18.7%	82 66.0%	190 15.3%	1,242 100%	
	하	8 11.1%	52 72.2%	12 16.7%	72 100.0%	

학년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 2학년들이 가장 많은 찬성응답(72.2%)을 하였고 고등학교 1학년들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19.7%)이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낮은 집단에게서 찬성비율(72.2%)이 높게 나타났다.

2) 교육감선거연령에 대한 견해

만 16세 이상부터 교육감 선거를 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소년들의 반 가량(51.5%)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는 응답(18.9%)도 20%에 육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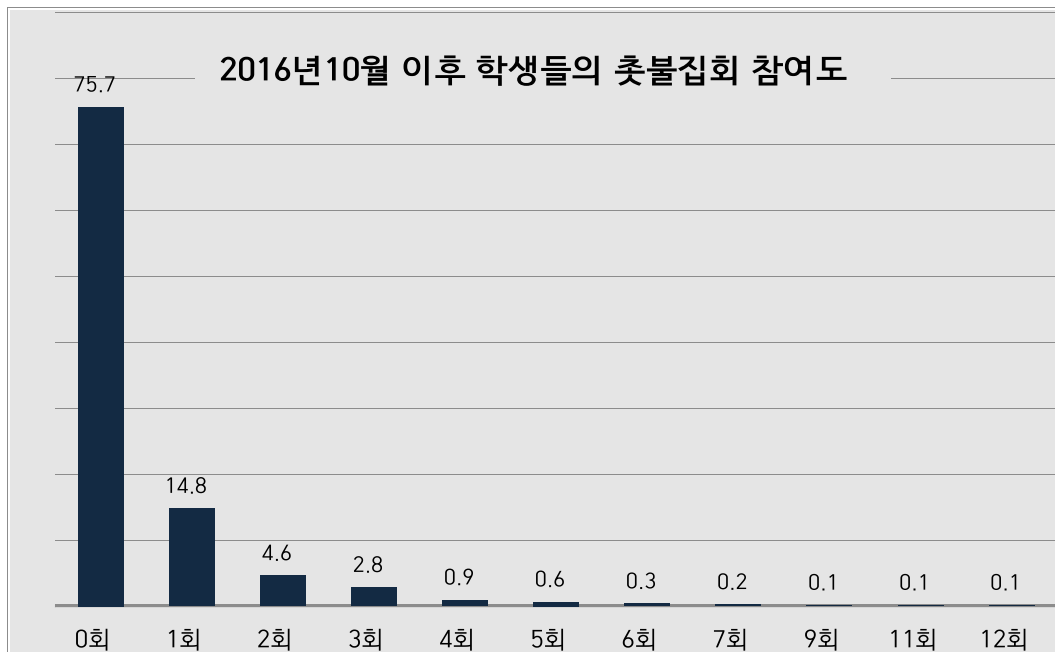
성별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드러났는데 남학생(49.1%)보다 여학생(54.6%)의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2학년생의 찬성비율(55.5%)이 가장 높았고 소득수준별로는 하에 속하는 집단의 찬성비율(58.3%)이 가장 많았다.

표 III-3 교육감 선거연령에 대한 의견

		반대	찬성	잘 모르겠음	전체	유의성
전체		422 (29.6%)	733 (51.5%)	269 (18.9%)	1,424명 (100.0%)	
성별	남	266 33.2%	393 49.1%	142 17.7%	801 100.0%	Chi-square =11.27 p<0.01
	여	156 25.0%	340 54.6%	127 20.4%	623 100.0%	
학년별	1학년	106 23.2%	249 54.6%	101 22.1%	456 100.0%	Chi-square =28.00 p<0.001
	2학년	141 28.1%	278 55.5%	82 16.4%	501 100.0%	
	3학년	175 37.5%	206 44.1%	86 18.4%	467 100.0%	
소득 수준별	상	26 24.3%	62 57.9%	19 17.8%	107 100.0%	Chi-square =4.48 (유의하지 않음)
	중	378 30.5%	627 50.6%	235 19.0%	1,240 100%	
	하	16 22.2%	42 58.3%	14 19.4%	72 100.0%	

3) 촛불집회 참여 횟수 및 참여예측요인

2016년 10월 국정농단사건이 알려진 후 진행된 촛불집회에 청소년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질문한 결과 75.7%의 응답자들이 한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그림 III-1] 참조). 즉 한번이라도 참여한 청소년은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집회참여평균은 0.44회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1.06이었다.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는 1회 참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 촛불집회참여횟수 (단위: %) N=1,421명

집단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학년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소득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 테스트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과 중간인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에서 중간인 집단에 비해 촛불집회참여가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4 집단별 촛불집회참여 차이

		평균	표준편차	유의성
성별	남	0.41	1.07	F=1.61 (유의하지 않음)
	여	0.48	1.04	
학년별	1학년	0.46	1.01	F=0.43 (유의하지 않음)
	2학년	0.46	1.16	
	3학년	0.41	0.99	
소득 수준별	상	0.66	1.59	F=6.35 (p<0.01) 사후테스트결과 중과 하의 차이가 유의함
	중	0.41	0.93	
	하	0.76	1.84	

집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집회참여여부(경험있음=1, 경험없음=0)를 종속변인²⁾으로 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치관심(5문항), 정치효능감(3문항), 정치적 대화(5문항)는 관련 변인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도 네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효능감은 청소년들의 집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부모나 친척, 친구들과 정치적 대화를 많이 할수록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적 관심정도는 촛불집회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뉴스 이용변인 가운데는 TV 뉴스와 인터넷신문뉴스가 청소년들의 집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셜미디어는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포털뉴스와 정치팟캐스트의 영향력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문제나 이슈에 관한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달거나 서명에 참여를 활발하게 할수록 촛불집회에 참여할 가능성도 두배 가량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도 비=2.134).

2) 1회 이상 촛불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1로 코딩하였다.

표 III-5 촛불집회참여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

		B	우도비 (Odds Ratio)	95% CI
인구학적 변인	성(여학생=1)	0.156	1.169	0.896~1.525
	경제수준(1~7)	0.012	1.012	0.890~1.151
정치사회적 변인	관심	-0.054	0.948	0.720~1.247
	효능감	0.240 ⁺	1.272	0.983~1.646
	대화	0.447 ^{**}	1.563	1.174~2.081
미디어이용	TV 뉴스	0.219 [*]	1.245	1.023~1.516
	라디오 뉴스	0.079	1.082	0.901~1.300
	소셜미디어뉴스	-0.211 [*]	0.810	0.678~0.967
	인터넷신문뉴스	0.188 [*]	1.207	1.028~1.418
	포털뉴스	-0.146	0.864	0.705~1.058
	정치팟캐스트	-0.059	0.943	0.780~1.139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		0.758 ^{***}	2.135	1.671~2.728
-2 loglikelihood		1394.91		

+p<0.1, *p<0.05, **p<0.01, ***p<0.001

촛불집회참여집단과 비집단의 정치적 관심,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대화의 차이정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에 비해 정치적 관심도 높았고 정치적 효능감도 컸으며 정치적 대화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III-6 집회참여여부에 따른 정치적 관심, 효능감, 대화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유의성
정치적 관심	비참여	2.40	0.68	t=7.52 (p<0.001)
	집회참여	2.72	0.66	
정치적 효능감	비참여	2.73	0.65	t=7.12 (p<0.001)
	집회참여	3.02	0.66	
정치적 대화	비참여	2.11	0.54	t=8.93 (p<0.001)
	집회참여	2.41	0.60	

4) 선거에 대한 관심 및 투표의향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물었다. 그 결과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7 선거에 대한 관심정도

선거에 대한 관심		평균	표준편차
1)	지방선거 (광역시, 도)	2.25	0.82
2)	지방선거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	2.22	0.82
3)	국회의원선거	2.58	0.90
4)	교육감선거	2.49	0.94
5)	대통령선거	3.41	0.76

투표권이 주어질 경우 청소년들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많이 투표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의향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투표의향

	투표의향	평균	표준편차
1)	지방선거 (광역시, 도)	2.94	0.91
2)	지방선거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	2.95	0.91
3)	국회의원선거	3.25	0.88
4)	교육감선거	3.26	0.89
5)	대통령선거	3.67	0.66

투표의향³⁾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된 변수들은 전체변량의 30.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정된 R 제곱 = 0.309). 먼저 인구학적 변인 중에는 성별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투표참여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적 변인 가운데는 정치적 관심과 정치효능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관심이 높고 정치효능감이 큰 청소년일수록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투표에 참여할 의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대화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치뉴스를 어떤 매체를 통해 얻는지도 투표의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지 포털정치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일수록 투표참여의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약한 수준이었다. 반면, 정치팟캐스트이용의 경우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도 투표참여의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촛불집회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투표참여의사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촛불집회참여가 청소년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데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면, 청소년의 투표참여의향 예측변인으로서는 여학생, 정치적 관심, 정치효능감, 포털뉴스이용정도, 촛불집회참여경험 등이다.

3)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5문항의 평균값을 종속변인으로 활용하였다.

표 III-9 투표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B (표준화계수)	t 값	VIF
인구학적 변인	성(여학생=1)	0.148 ^{***}	6.532	1.040
	경제수준(1~7)	0.008	0.349	1.009
정치사회적 변인	관심	0.301 ^{***}	9.376	2.092
	효능감	0.240 ^{***}	8.580	1.584
	대화	0.001	0.024	1.592
미디어이용	TV 뉴스	0.020	0.784	1.372
	라디오 뉴스	0.018	0.716	1.254
	소셜미디어뉴스	0.030	1.166	1.300
	인터넷신문뉴스	0.026	0.968	1.473
	포털뉴스	0.052 ⁺	1.932	1.485
	정치팟캐스트	-0.051 ⁺	-1.943	1.404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		-0.021	-0.687	1.884
촛불집회참여여부(참여=1)		0.079 ^{**}	3.346	1.124
수정된 R 제곱		0.309		

+p<0.1, **p<0.01, ***p<0.001

5) 대통령의 자질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로 청소년들은 신뢰성과 정직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정책추진력, 지도력, 도덕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8가지 자질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국정농단사건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청소년들은 정직하고 신뢰할만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표 Ⅲ-10 대통령의 자질

대통령의 자질	평균	표준편차
1) 도덕성	4.52	0.74
2) 정직성	4.73	0.62
3) 신뢰성	4.75	0.57
4) 서민적인 성품	4.23	0.93
5) 국정운영 경험	4.11	0.95
6) 지도력	4.60	0.67
7) 정책추진력	4.62	0.66
8) 전문성	4.30	0.85

대통령의 자질을 크게 개인적 자질(도덕성, 정직성, 신뢰성, 서민적인 성품)과 직무능력(국정운영경험, 지도력, 정책추진력, 전문성)으로 나눠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적 자질의 평균값은 4.55, 표준편차 0.59로 나타났고 직무능력의 평균값은 4.40, 표준편차 0.62로 드러났다. 즉 청소년들은 개인적 자질과 직무능력을 거의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6) 우리사회의 시급한 문제

19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청소년들은 청년실업문제를 꼽았다. 이어 부정부패문제, 범죄문제, 빈부격차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흥미롭게도 9가지 문제 중에서 세대갈등문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지역갈등도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세대나 지역간 갈등을 다른 문제에 비해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해결과 부정부패척결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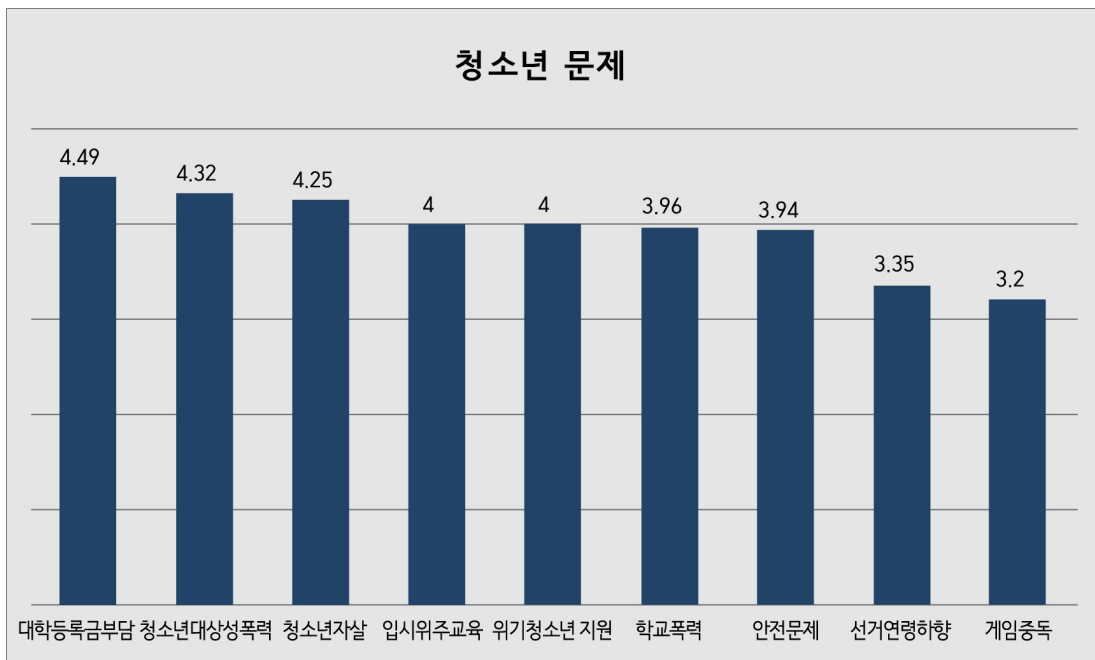
표 III-11 해결돼야 할 우리사회의 시급한 문제

사회문제	평균	표준편차
1) 빈부격차	4.10	0.83
2) 세대갈등	3.36	0.93
3) 지역갈등	3.43	0.94
4) 청년실업	4.63	0.67
5) 북한과의 관계	3.82	1.04
6) 부정부패	4.52	0.78
7) 이념대립 및 갈등	3.68	0.90
8) 범죄	4.17	0.91
9) 사드배치	3.97	0.96

19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청소년문제로는 대학등록금부담이 꼽혔다. 청소년대상성 폭력문제, 청소년자살문제도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선거연령하향문제와 게임중독문제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앞서, 많은 청소년들이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했지만 선거연령하향이 새로운 정부에서 해결돼야 시급한 문제로는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게임중독 또한 청소년들은 다른 문제들에 비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성격의 것으로 보지 않았다.

표 Ⅲ-12 시급한 청소년문제

청소년문제		평균	표준편차
1)	입시위주의 교육	4.00	1.08
2)	선거연령 하향	3.35	1.13
3)	학교폭력문제	3.96	0.91
4)	게임중독문제	3.20	1.08
5)	안전문제	3.94	0.95
6)	위기청소년지원	4.00	0.93
7)	청소년자살	4.25	0.93
8)	대학등록금부담문제	4.49	0.77
9)	청소년대상성폭력문제	4.32	0.89



[그림 Ⅲ-2] 청소년문제 순위

7)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전반적으로 평균(2.5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공공기관 가운데는 언론에 대한 신뢰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공공기관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청소년의 불신이 크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표 III-13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	평균	표준편차
1) 정부	1.90	0.69
2) 정당	1.92	0.67
3) 국회	1.98	0.71
4) 언론	2.23	0.78

8) 정치뉴스의 이용 매체

정치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뉴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뉴스를 접하는 주요 통로였다. 하지만, 라디오뉴스나 정치팟캐스트는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의 경우 소셜미디어나 포털뉴스를 통해 정치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14 정치뉴스 이용 매체

매체	평균	표준편차
1) TV 뉴스	2.99	0.81
2) 라디오뉴스	1.64	0.76
3) 소셜미디어	3.39	0.87
4) 인터넷신문	2.34	0.97
5) 포털뉴스	3.14	0.82
6) 정치팟캐스트	1.56	0.76

9)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 가운데는 게시글 읽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자신의 견해나 의견피력하기, 온라인청원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III-15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	평균	표준편차
1)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글 읽기	2.96	0.90
2)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의견달기	1.63	0.83
3)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거나 퍼나르기	2.15	1.07
4)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청원이나 서명참여	1.64	0.86

10) 정치적 대화

정치문제나 이슈에 관해 평소 누구와 자주 대화하는 지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 부모나 친구와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교사, 친척, 온라인친구와 대화빈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III-16 정치적 대화 정도

대화대상	평균	표준편차
1) 친구	2.80	0.79
2) 부모	2.84	0.87
3) 교사	1.93	0.85
4) 친척	1.76	0.85
5) 온라인친구	1.62	0.87

11) 정치적 관심

청소년들은 정치적 문제 가운데 정치적인 이슈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TV 정치토론에 대한 관심은 가장 낮았다.

표 III-17 정치적 관심

정치적 관심대상	평균	표준편차
1) 정치적인 이슈	2.88	0.79
2) 정부정책	2.65	0.84
3) 정당	2.23	0.82
4) 정치인	2.42	0.86
5) TV 정치토론	2.21	0.87

12) 정치효능감

청소년들의 정치효능감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효능감을 구성하는 세 문항의 평균 값은 2.80 (표준편차 0.67) 으로 나타났고 크로바흐 알파값은 0.857로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간 차이는 아래 표에서 나타난것처럼 거의 없었다.

표 III-18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2.81	0.81
2)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이 있다.	2.77	0.76
3) 나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81	0.81

성별, 학년별, 소득수준별로 정치효능감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치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2학년의 정치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소득수준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19 집단별 정치효능감 차이

		평균	표준편차	유의성
성별	남	2.76	0.69	F=5.19 (p<0.05)
	여	2.84	0.63	
학년별	1학년	2.72	0.68	F=4.68 (p<0.05) 사후테스트결과 1학년과 2학년의 차이가 유의함
	2학년	2.85	0.65	
	3학년	2.80	0.66	
소득 수준별	상	2.81	0.80	F=0.02 (유의하지 않음)
	중	2.80	0.65	
	하	2.81	0.73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는 정치적 관심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경험이 많을수록 정치적 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디어이용변인가운데는 TV 뉴스 이용이 정치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인터넷신문과 포털뉴스의 영향력은 다소 미약하였다. 하지만, 촛불집회참여여부는 정치적 효능감의 증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투입된 변수들은 전체변량의 36.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대화 또한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III-20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B (표준화계수)	t 값	VIF
인구학적 변인	성(여학생=1)	0.031	1.431	1.039
	경제수준(1~7)	0.028	1.293	1.007
정치사회적 변인	관심	0.419 ^{***}	14.618	1.814
	대화	0.047	1.748	1.589
미디어이용	TV 뉴스	0.092 ^{***}	3.703	1.358
	라디오 뉴스	-0.012	-0.484	1.254
	소셜미디어뉴스	0.015	0.630	1.301
	인터넷신문뉴스	0.049 ⁺	1.911	1.469
	포털뉴스	0.044 ⁺	1.705	1.482
	정치팟캐스트	-0.047 ⁺	-1.943	1.404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		0.120 ^{***}	4.140	1.863
촛불집회참여여부(참여=1)		0.037	1.641	1.122
수정된 R 제곱		0.363		

13) 정치교육경험

지금까지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수업시간에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해 토론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의선거에 대한 경험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21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경험

정치교육		평균	표준편차
1)	수업시간에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	2.46	0.85
2)	모의대통령선거	1.73	0.80
3)	모의국회의원선거	1.60	0.72
4)	모의 UN 선거	1.50	0.65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의 54.1%가 수업시간에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경험이 있는 것(가끔 경험한 것 +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56.3%)이 남학생(52.4%)보다 약간 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이 높을수록 경험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대통령선거의 경우 여학생(19.5%)이 남학생(17.8%)보다 경험비율이 약간 더 높았고 학년이 낮을수록 경험빈도는 늘어났다. 즉 고등학교 1학년생 21.4%, 2학년 17.9%, 3학년 16.5%가 모의대통령선거를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남녀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즉 남학생의 11.9%, 여학생의 11.3%가 모의국회의원선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13.3%)이 모의국회의원선거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모의 UN 선거의 경우 전체응답자의 6.9%만이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6.7%, 여학생의 7.2%가 가끔 혹은 자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이 높을수록 경험빈도도 높았다.

표 III-22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경험 빈도 (단위: %)

	배경변인		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하였다	자주 경험하였다	계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성	남	16.7	30.9	45.5	6.9	100
		여	15.1	28.6	47.4	8.8	99.9
	학년	1	17.7	30.9	44.2	7.2	100
		2	14.1	32.1	45.8	7.9	99.9
		3	16.5	26.5	48.9	8.1	100
모의 대통령선거	성	남	47.3	34.8	15.9	2.0	100
		여	46.9	33.6	17.2	2.3	99.9
	학년	1	42.9	35.7	18.6	2.8	100
		2	45.8	36.3	16.5	1.4	99.9
		3	52.8	30.8	14.3	2.1	100
모의 국회의원 선거	성	남	52.8	35.3	10.4	1.5	100
		여	52.1	36.7	10.5	10.8	100.1
	학년	1	47.9	38.7	12.3	1.1	100
		2	51.0	37.3	11.1	0.6	100
		3	58.5	31.6	7.9	1.9	99.9
모의 UN 선거	성	남	59.4	34.0	6.1	0.6	100
		여	56.9	35.9	5.9	1.3	100.1
	학년	1	54.3	39.4	5.9	0.4	100
		2	57.9	35.5	5.8	0.8	100
		3	62.6	29.5	6.4	1.5	99.9

14)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청소년의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으로는 아래 열거된 내용들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이 중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리더십함양교육, 민주시민교육, 정치기관견학, 모의선거 순이었다.

표 III-23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정치교육		평균	표준편차
1)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2.94	0.78
2)	모의선거	2.67	0.79
3)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2.79	0.80
4)	리더십함양교육	2.87	0.81
5)	국회나 도의회/시의회등 정치기관 견학	2.75	0.85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남학생의 77.7%, 여학생의 83.8%가 토론수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학년이 높을수록 토론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고 1 76.1%, 고 2 82.1%, 고 3 82.5%)은 높았다.

모의 선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남학생의 58.5%, 여학생의 67.0%가 필요하다(필요+매우필요)고 응답해 여학생들이 약간 더 모의선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모의선거의 필요성을 가장 공감하였다. 즉 모의선거의 필요성에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교 1학년 61.3%, 2학년 60.9%, 3학년 64.5%였다.

남학생의 67.6%, 여학생의 74.1%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학년이 높을수록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도 높았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10명 중 7명(70.4%)이 민주시민교육이 청소년의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리더십함양교육의 경우 남학생(70.5%)보다 여학생(79.3%)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학년이 높을수록 그 비율은 높았다.

정치기관견학의 경우에도 남학생(60.8%)보다 여학생(74.0%)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년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24 정치교육에 대한 욕구 경험 빈도 (단위: %)

	배경변인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성	남	8.9	13.4	58.4	19.2	100
		여	4.3	11.9	60.4	23.4	100
	학년	1	8.8	15.1	59.1	17.1	100
		2	4.6	13.3	60.9	21.2	99.9
		3	7.7	9.8	57.7	24.8	100
모의 선거	성	남	11.6	29.9	47.3	11.2	100
		여	3.7	29.3	52.6	14.5	99.9
	학년	1	7.9	30.8	51.4	9.9	100
		2	7.1	31.9	47.4	13.5	99.9
		3	9.4	26.1	50.2	14.3	100
민주시민교육	성	남	10.8	21.6	51.6	16.0	100
		여	4.0	21.9	56.8	17.4	100.1
	학년	1	9.2	24.6	53.3	12.9	100
		2	6.9	21.4	53.2	18.5	100
		3	7.5	19.2	55.1	18.2	100
리더십함양교육	성	남	9.9	19.6	51.0	19.5	100
		여	3.9	16.9	59.1	20.2	100.1
	학년	1	7.9	20.6	54.0	17.5	100
		2	6.3	19.6	54.4	19.6	100
		3	7.7	15.0	55.1	22.2	100
정치기관견학	성	남	13.8	25.4	43.2	17.6	100
		여	4.0	22.0	55.5	18.5	100
	학년	1	9.2	24.5	50.3	16.0	100
		2	8.5	24.4	47.6	19.4	100
		3	10.9	22.9	47.9	18.4	100.1

15) 선거연령하향찬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앞서 만 18세 이상으로 투표연령을 낮춰야 한다는데 찬성의견이 많았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찬성과 반대로 범주화(찬성=1, 반대=0)하여 찬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팹캐스트이용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반대의견보다는 찬성의견을 보일 확률이 1.577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팹캐스트를 많이 볼수록 선거연령하향에 찬성할 확률은 1.252배 높아졌다.

표 Ⅲ-25 선거연령하향 찬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 (N=1,183)

		B	우도비 (Odds Ratio)	95% CI
인구학적 변인	성(여학생=1)	0.229	1.257	0.939~1.682
	경제수준(1~7)	-0.061	0.941	0.818~1.082
정치사회적 변인	관심	-0.130	0.878	0.653~1.182
	효능감	0.456**	1.577	1.204~2.067
	대화	0.192	1.211	0.899~1.651
미디어이용	TV 뉴스	0.001	1.001	0.818~1.225
	라디오 뉴스	0.104	1.110	0.898~1.371
	소셜미디어뉴스	0.017	1.017	0.847~1.222
	인터넷신문뉴스	-0.108	0.897	0.753~1.069
	포털뉴스	0.060	1.062	0.856~1.317
	정치팹캐스트	0.225 ⁺	1.252	0.996~1.574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		0.075	1.078	0.816~1.424
집회참여경험(있음=1)		-0.003	0.997	0.706~1.408
-2 loglikelihood			1206.01	

+p<0.1, **p<0.01

16) 자신의 정치적 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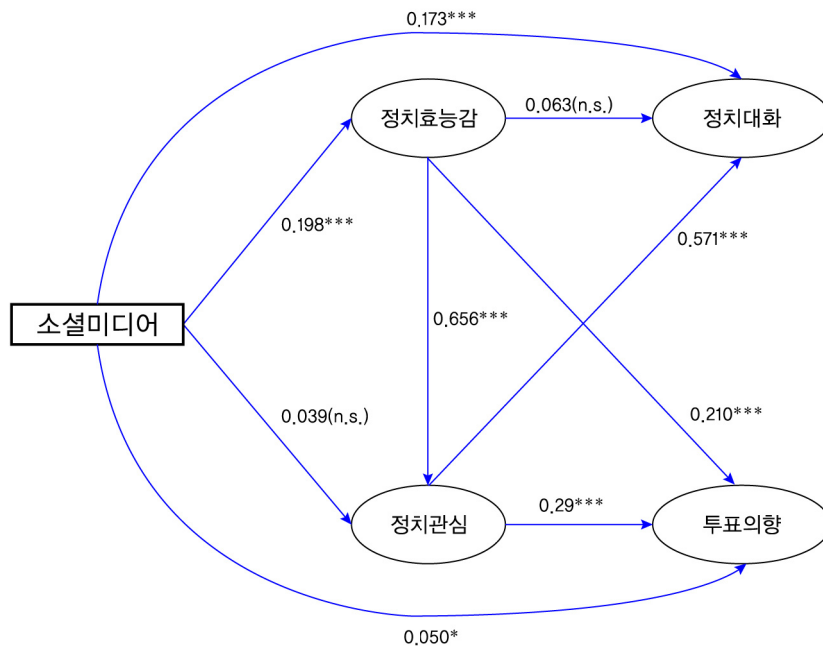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어디에 가까운지 0점에서 10점 사이에서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은 5.85점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다소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풋볼집회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을 구분해 살펴본 결과 풋볼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들이 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참여집단의 평균은 6.36점인데 비해 비참여집단의 평균은 5.69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녀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년별로 차이를 분석한 결과도 성별과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았다. 학년 중에는 고등학교 3학년의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자신의 정치적 성향

집단구분		평균	표준편차	차이검증
전체		5.85	2.07	
풋볼집회참여여부	비참여집단	5.69	2.07	t=-5.43, p<0.001
	참여집단	6.36	1.96	
성별	남	5.88	2.23	t=0.65 (n.s.)
	여	5.81	1.86	
학년별	1학년	5.73	2.04	F=1.04 (n.s.)
	2학년	5.89	2.14	
	3학년	5.91	2.03	

17) 소셜미디어 뉴스이용이 정치적 대화 및 투표의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뉴스가 정치적 효능감 및 정치적 관심을 매개로 정치적 대화 및 투표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⁴⁾. 그 결과, 적합도지수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일수록 정치적 효능감도 높고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의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정치적 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정치적 효능감은 정치적 관심을 매개로 정치적 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 Chi-square=1478.65, $p < 0.001$, NFI=0.897, CFI=0.905, TLI=0.886, RMSEA=0.086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III-3] 소셜미디어뉴스 이용이 정치적 대화 및 투표의향에 미치는 영향

4) 대화를 구성하는 5개 문항 중 온라인친구와의 대화는 표준화요인부하량값이 0.5 이하로 나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아래 <표 III-27>은 주요 변인들의 직, 간접 효과 및 총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트스트랩을 이용해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정치효능감과 정치적 관심은 소셜미디어 뉴스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뉴스이용은 정치적 대화나 투표의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치효능감과 정치적 관심 확대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뉴스가 정치적 대화와 투표의향에 미친 총 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특히 정치효능감이 정치관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관심이 정치적 대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주요 변인들의 직, 간접효과 및 총 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소셜미디어뉴스 → 정치효능감	0.198***		0.198**
소셜미디어뉴스 → 정치관심	0.039	0.130**	0.169**
소셜미디어뉴스 → 정치적 대화	0.173***	0.109**	0.282**
소셜미디어뉴스 → 투표의향	0.050*	0.095**	0.145**
정치효능감 → 정치적 대화	0.063	0.375**	0.438**
정치효능감 → 투표의향	0.210***	0.205**	0.415**
정치효능감 → 정치적 관심	0.656***		0.656**
정치적 관심 → 정치적 대화	0.571***		0.571**
정치적 관심 → 투표의향	0.313***		0.313**

*p<0.05, **p<0.01, ***p<0.001

제 IV 장

청소년정치참여활성화방안

1.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2. 정치교육의 원칙 확립
3. 정치관련 교과목의 필수화
4. 수업시간을 통한 정치적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 활성화
5. 모의선거를 통한 정치참여의 확대
6. 거리집회 등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 및 정치효능감 제고
7. 선거연령하향 제도화를 위한 노력

제 IV 장

청소년정치참여활성화방안

청소년의 정치참여활성화방안으로 본 연구는 아래의 7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학교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책방안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정치교육의 원칙확립, 정치관련 교과목의 필수화, 수업시간을 통한 정치적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모의선거를 통한 정치참여확대나 거리집회 등 활동을 통한 정치효능감증진은 지역사회 및 청소년관련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마지막으로 선거연령하향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무엇보다도 정치권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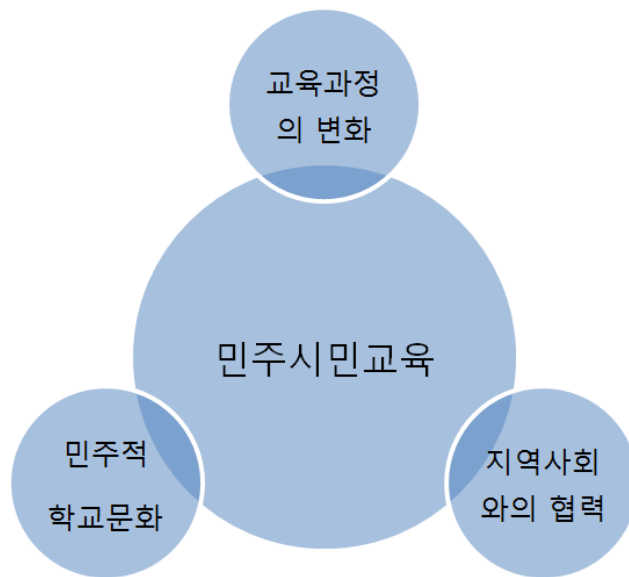
1.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앞서 살폈듯이 독일은 일찍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면서 국가 뿐 아니라 시민단체 차원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에도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어느 정도 공감성이 이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 학교에서 시민교육이 뿌리를 내리기에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

이와 관련해 장은주(2017)는 『시민교육이 희망이다』는 책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학교가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 내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주적 학교문화가 정착될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일상의 삶과 자치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민주시민교육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변화, 민주적 학교문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IV-1] 참조). 그는 또한 정부조직으로부터 독립돼 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책임있게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⁵⁾.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5) 저자와의 자문회의 때 언급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함 ('17. 3. 31)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⁶⁾. 이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5년단위 수립, 민주시민교육원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단위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V-1] 민주시민교육의 구성요소

출처: 장은주 (2017).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한편, 이동연은 청소년정치접근권의 확대를 위해 미디어교육을 통한 정치담론의 이해와 청소년의 참여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2002). 즉 TV 정치토론을 모니터링한다든가 언론의 정치적 사안이나 이슈에 대한 보도형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치적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아젠다를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현실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민주적 시민역량을 함양하는 것이야말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을 검색함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017년 4월 19일 검색)

2. 정치교육의 원칙 확립

우리사회의 경우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매우 심한 편이다. 즉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념갈등과 대립이 격화돼 왔다. 정치교육 또한 좌, 우파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다. 즉 청소년들에게 정치교육을 한다고 하면 청소년을 좌파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교육을 제도화하거나 강화하기는 거의 어렵다. 따라서, 독일처럼 좌, 우파를 넘어서서 정치교육에 대한 일정한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1976년 모든 정파의 정치인들과 교육자들이 보이텔스바흐라는 소도시에 모여 정치교육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한다(장은주, 2017). 이 합의에 따르면, 교사는 어떤 수단을 써든 학생들에게 특정한 견해를 주입해서는 안되고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시간에도 논쟁적으로 드러나야 한다(189-190쪽). 이 합의는 학생들이 스스로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학교는 학생들이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적 담론의 공간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특정한 견해나 이데올로기를 가진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접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관점이나 사고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 정치교육에 관한 일정한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를 우리사회에 적용시켜보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진보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함께 청소년의 정치교육에 대한 공동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정치관련 교과목의 필수화

앞서, 김명정(2016)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교육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법과 정치’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의 비율은 채 10%도 안되고 이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법과 정치’ 과목이 사회탐구의 선택과목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존의 정치과목과 법과목이 합쳐졌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량도 많아 수험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정치관련 교과목을 많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관련 과목들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⁷⁾.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제도, 선거제도, 법 등 기본적인 정치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7) 김명정 부연구위원의 자문내용에 기초함 (4월 6일 온라인 자문)

4. 수업시간을 통한 정치적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 활성화

앞서 조사에서도 밝혔듯이, 절반가량의 청소년들(54.1%)이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을 벌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의 경험을 물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매우 낮은 것임에는 틀림없다.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 하에서 청소년들은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정치적인 제도나 체계에 대해 암기하기에 바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탐구영역시간을 활용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정치적인 문제나 사안, 쟁점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입식교육의 틀을 과감히 깨뜨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서로 논의하는 토론식 교육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토론식 수업 외에도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특정이슈를 놓고 찬반 토론을 벌이는 토론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하는 것도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이나 의견에 주의를 하게 되고 자신들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모의선거를 통한 정치참여의 확대

앞서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은 모의선거를 경험한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미국사례와 달리 우리사회에서는 학교에서 모의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5월 9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됐지만 각 후보자의 정책을 상호 비교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학교교육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YMCA 전국연맹 등이 주관한 모의투표가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5월 9일 전국 30여개 투표소에서의 오프라인투표와 온라인투표(www.18vote.net)를 통해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모의투표를 실시하였다(중앙일보, 2017. 5. 1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치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모의선거가 이뤄진 면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향후 많은 청소년관련기관이 참여하여 모의선거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경험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거리집회 등 활동을 통한 정치참여 및 정치효능감 제고

앞서 분석했듯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투표의 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록 촛불집회참여여부가 정치효능감제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광장 촛불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정치효능감과 정치관심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촛불집회와 같은 비제도적 참여의 중요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러한 참여기회는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집회의 경우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제에 참여하면서 책을 통해 배우는 민주주의보다 집회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고 말했다(이창호, 정의철, 2008). 일부 청소년들은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초나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했고 집회가 끝난 뒤 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년들의 모습도 눈에 많이 띄었다.

이러한 오프라인참여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청원이나 서명, 온라인 상의 게시글 쓰기 등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온라인실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은 소셜미디어상의 게시글 읽기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게시글이나 댓글올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라는 공간을 통해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을 활발히할수록 정치효능감은 향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수업시간 등을 활용하여 소셜미디어를 비롯한 새로운 매체에 자신의 견해나 의견을 올리는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7. 선거연령하향 제도화를 위한 노력

본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청소년들이 선거연령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선거참여에 관한 욕구도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이 그 계기가 돼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연이어 계속된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거나 가족과 함께 참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이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많은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뉴스를 접하고 있다. 가족이나 학교와 같은 전통적인 정치사회화기관은 이제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 선거권연령 하향조정은 정치권 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최근의 국정농단사건으로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선거연령이 낮춰지면 고등학교 3학년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이제 청소년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공약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청소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다보니 많은 관심들이 노인에게 쏟아졌다.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면 청소년들의 표를 얻으려는 후보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김명정 (2009).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참여활동이 청소년의 민주적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정치·정보연구**, 12(2), 119-142.
- 김명정 (2016). 수능선택률과 고등학교 정치교육. **한국정치학보**, 50집 2호, 31-50.
- 김미경 (2009). 한국과 독일의 정치교육 비교: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15-1호, 33-64.
- 김성태, 김여진, 최홍규, 김형지 (2011).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채널의 확장과 정치참여 변화 연구. **평화연구**, 19(1), 5-38.
- 김영인 (2003). 제16대 대선이 청소년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과 청소년 정치교육. **청소년학연구**, 10권 2호, 73-105.
- 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윤나 (2010). 청소년 참여권 연령에 대한 부모-교사-청소년간 인식차이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0(3), 353-381.
- 김은미, 양소은 (2013). ‘디지털 네이티브’의 시민성. **한국언론학보**, 57(1), 305-334.
- 모상현, 이창호 (2012).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정치참여/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탐색. **시민청소년학연구**, 제3권 1호, 41-64.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2002). **청소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정책공청회 자료집.
- 민영 (2008). 뉴스미디어, 캠페인미디어, 그리고 정치대화가 후보자 이미지와 정치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4, 108-143.
- 민영 (2014). 뉴스와 엔터테인먼트의 융합: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정치 팟캐스트의 효과.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70-96.

- 민영, 노성종 (2011).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인터넷이용, 정치의식, 그리고 정치참여.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284-308.
- 민영, 주익현 (2007). 사회자본의 민주주의 효과: 미디어이용과 사회자본이 정치관심과 신뢰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190-217.
- 배규한, 이창호 (2008). 청소년의 세대특성 및 세대간 소통방식에 관한 연구: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시과제 보고서.
- 배상률 (2015).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서울경제 (2017. 1. 1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 반대. <http://www.sedaily.com/NewsView/1OASG7FCGV> (2017년 1월 18일 인출)
- 송경재 (2005). 네트워크 시대의 인터넷 정치참여: 탄핵정국 디시인사이드 정치토론게시판을 중심으로. **담론** 201, 8(3), 123-160.
- 송종길 · 박상호 (2006). 정치관여도, 미디어중요성, 정치냉소주의와 정치효능감이 정치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0권 3호, 166-197.
- 신보라의원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세미나 자료집.
- 안명규 · 류정호 (2007). 인터넷정치참여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학생 이용자의 정치심리변수와 인터넷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3호, 113-148.
- 이상경 (2014). 청소년의 선거연령 18세 인하문제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25(4), 369-396.
- 이봉민 (2013). 청소년의 정치적 정향유형에 따른 성인기 정치참여의사의 차이. **시민청소년학연구**, 제4권 제2호, 51-78.
- 이용운, 하승태 (2015).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정치적 의사소통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언론학연구**, 19(1), 221-247.
- 이재신, 이영수 (2009). 정치정보습득, 관여도, 정치적 불만과 정치참여 유형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53권 2호, 183-205.
- 이정기 (2011). 온 ·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저항적(대안적)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미디어이용량, 미디어신뢰도, 정치신뢰도, 정치효능감이 저항적(대안적) 정치참여경험과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18, 73-109.

- 이철한, 현경보 (2007). 유권자의 미디어의 이용이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정치불신감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제7권 4호, 112-142.
- 이창호 (2012). 소셜미디어가 대학생들의 정치효능감, 정치관심 및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7, 231-259.
- 이창호, 모상현 (2012). 청소년의 정치,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탈물질주의가치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4호, 143-164.
- 이창호, 성운숙, 정낙원 (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창호, 정의철 (2008). 촛불문화제에 나타난 청소년의 사회참여특성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8권 제3호, 457-491.
- 일요서울 (2017. 2. 21).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대상 의식조사 실시.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827>
 (2017년 2월 3일 인출)
- 장근영, 박수익 (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 I: 2011 민주시민역량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근영, 성은모, 이경상, 진성희, 최효선, 김균희 (2016).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우영 (2006).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 ‘총선연대’와 ‘노사모’의 사이버액티비즘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13권 3호, 49-68.
- 장은주 (2017).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서울: 피어나.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7). **교육정책 및 방향수립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보고서**.
<http://www.ncge.or.kr/>에서 2017년 2월 7일 인출.
- 중앙일보 (2017. 5. 10). [TONG] “우리도 뽑았다 대통령!” ...19대 대선 모의투표현장.
<http://news.joins.com/article/21561579>에서 2017년 5월 11일 인출.
-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2). **주요 대선후보별 아동·청소년정책 비교·평가. 월간 복지동향**, 73-75.
- 최호택, 류상일 (2008). 청소년정치·행정요인과 정치·행정의식수준간의 관계-대전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5), 207-214.

- 하승태, 이정교 (2012).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이용유형이 이들의 정치사회적 의식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2), 101-129.
- 하종원 (2006). 대학생의 인터넷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2호, 369-406.
- 한국리서치 (2017). *청소년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표*.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2016 10대 청소년미디어이용조사.
<http://www.kpf.or.kr/site/kpf/main.do>에서 2017년 5월 24일 인출함.
- 허인숙, 이정현 (2004).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과 시민성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5(2), 443-472.
- 홍은영 (2015). 독일정치교육의 현황과 과제. 2015년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51-65.
- Gil de Zuniga, H., Jung, N., & Valenzuela, S. (2102). Social Media Use for News and Individuals' Social Capital, Civic Engage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7, 319-336.
- Hao, X., Wen, N., & George, C. (2014). News consumption and political and civic engagement among young people. *Journal of Youth Studies*, 17, 1221-1238.
- Hoffman, L. H., & Thomson, T. L. (2009). The Effect of Television Viewing on Adolescents' Civic Participation: Political Efficacy as a Mediating Mechanism.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3(1), 3-21.
- Jung, N., Kim, Y., & Gil de Zuniga, H. (2011). The mediating role of knowledge and efficacy in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4, 407-430.
- Odegard, G., & Berglund, F. (2008). Political participation in late modernity among Norwegian youth: an individual choice or a statement of social class. *Journal of Youth Studies*, 11(6), 593-610.

.....

부 록

부 록

부록 1. 청소년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조사 설문지

청소년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 기관으로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3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이창호 선임연구위원	(044) 415-2230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황인창 부장 / 박종경 과장	(02) 3014-0988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미디어 이용 및 정치이슈 관련 대화

문 1. 학생은 우리 사회의 정치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아래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합니까?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가끔 이용한다	자주 이용한다
1) TV 뉴스	①	②	③	④
2) 라디오 뉴스	①	②	③	④
3)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①	②	③	④
4) 인터넷신문(조선닷컴, 한겨레닷컴, 쿠키뉴스 등)	①	②	③	④
5) 포털뉴스 (네이버, 다음 등)	①	②	③	④
6) 정치팟캐스트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용민의 브리핑 등)	①	②	③	④

문 2. 학생은 **최근 한달간**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나요?

	전혀 하지 않았다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 했다	자주 했다
1)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게시물 읽기	①	②	③	④
2)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의견 달기 (글쓰기, 댓글달기 등)	①	②	③	④
3)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타인의 글을 공유하거나 퍼나르기 (좋아요 누르기 등)	①	②	③	④
4)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청원이나 서명참여	①	②	③	④

문 3. 학생은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해 아래의 사람들과 평소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는 편입니까?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가끔 대화를 한다	자주 대화를 한다
1) 친구들	①	②	③	④
2) 부모님	①	②	③	④
3)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4) 친척들	①	②	③	④
5) 온라인친구(온라인에서 알게된 사람들)	①	②	③	④

정서관심 및 효능감

문 4. 학생은 평소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관심없다	별로 관심없다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많다
1) 정치적인 이슈	①	②	③	④
2) 정부정책	①	②	③	④
3) 정당	①	②	③	④
4) 정치인	①	②	③	④
5) TV 정치토론	①	②	③	④

문 5.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바람직한 국가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나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바람직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선거참여

문 6. 학생은 우리 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약간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많다
1) 지방 선거 (광역시/도 단체장)	①	②	③	④
2) 지방 선거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	①	②	③	④
3) 국회의원 선거	①	②	③	④
4) 교육감 선거	①	②	③	④
5) 대통령 선거	①	②	③	④

문 7. 만약 학생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종류의 선거에서 얼마나 투표할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투표할 의향이 없다	별로 투표할 의향이 없다	투표할 의향이 약간 있다	반드시 투표하고 싶다
1) 지방 선거 (광역시/도 단체장)	①	②	③	④
2) 지방 선거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	①	②	③	④
3) 국회의원 선거	①	②	③	④
4) 교육감 선거	①	②	③	④
5) 대통령 선거	①	②	③	④

문 8. 현행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최근 투표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투표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반대
- 2) 찬성
- 3) 잘 모르겠음

문 9. 교육감을 뽑는 선거의 경우 만 16세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반대
- 2) 찬성
- 3) 잘 모르겠음

최근 촛불집회 참여 정도

문 10. 2016년 10월 이후 전국 각지에서 촛불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은 지금까지 촛불집회에 얼마나 참여하였습니까?

(참여한 적이 없으면 '0' 회로 응답해주세요)

() 회

정치교육

문 11. 학생은 지금까지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포함하여 학교에서 아래의 내용을 경험한 적이 어느 정도 있나요?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	거의 경험하지 않았다	가끔 경험하였다	자주 경험하였다
1) 수업시간에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	①	②	③	④
2) 모의 대통령선거	①	②	③	④
3) 모의 국회의원선거	①	②	③	④
4) 모의 UN 선거	①	②	③	④

정치교육에 대한 욕구

문 12. 학생은 청소년의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아래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①	②	③	④
2) 모의선거	①	②	③	④
3) 시민성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①	②	③	④
4) 리더십함양교육	①	②	③	④
5)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①	②	③	④

19대 대통령 선거

문 13. 올해 5월 9일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선출할 대통령의 자질 중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도덕성	①	②	③	④	⑤
2) 정직성	①	②	③	④	⑤
3) 신뢰성	①	②	③	④	⑤
4) 서민적인 성품	①	②	③	④	⑤
5) 국정운영경험	①	②	③	④	⑤
6) 지도력	①	②	③	④	⑤
7) 정책추진력	①	②	③	④	⑤
8)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문 14.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새롭게 출범하는 19대 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우리사회의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1) 빈부격차	①	②	③	④	⑤
2) 세대갈등	①	②	③	④	⑤
3) 지역갈등	①	②	③	④	⑤
4) 청년실업	①	②	③	④	⑤
5) 북한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6) 부정부패	①	②	③	④	⑤
7) 이념대립 및 갈등	①	②	③	④	⑤
8) 범죄	①	②	③	④	⑤
9)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①	②	③	④	⑤

문 15.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새롭게 출범하는 19대 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청소년과 관련한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다	보통이다	시급하다	매우 시급하다
1) 입시위주의 교육	①	②	③	④	⑤
2) 선거연령 하향	①	②	③	④	⑤
3) 학교폭력문제	①	②	③	④	⑤
4) 게임중독문제	①	②	③	④	⑤
5) 안전문제	①	②	③	④	⑤
6) 위기청소년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자살	①	②	③	④	⑤
8) 대학등록금부담	①	②	③	④	⑤
9) 청소년대상 성폭력	①	②	③	④	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문 16. 학생은 아래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나요?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 정부	①	②	③	④
2) 정당	①	②	③	④
3) 국회	①	②	③	④
4) 언론	①	②	③	④

배경변인

문 17. 학생의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해당되는 점수에 체크해 주세요.
(※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이고 높을수록 진보적임)

0 _____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7 _____ 8 _____ 9 _____ 10
(보수적임) (진보적임)

문 18. 귀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연구보고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인 쇄 2017년 5월 31일

발 행 2017년 5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식회사 다원기획 전화 044)865-8115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팀)



연구보고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